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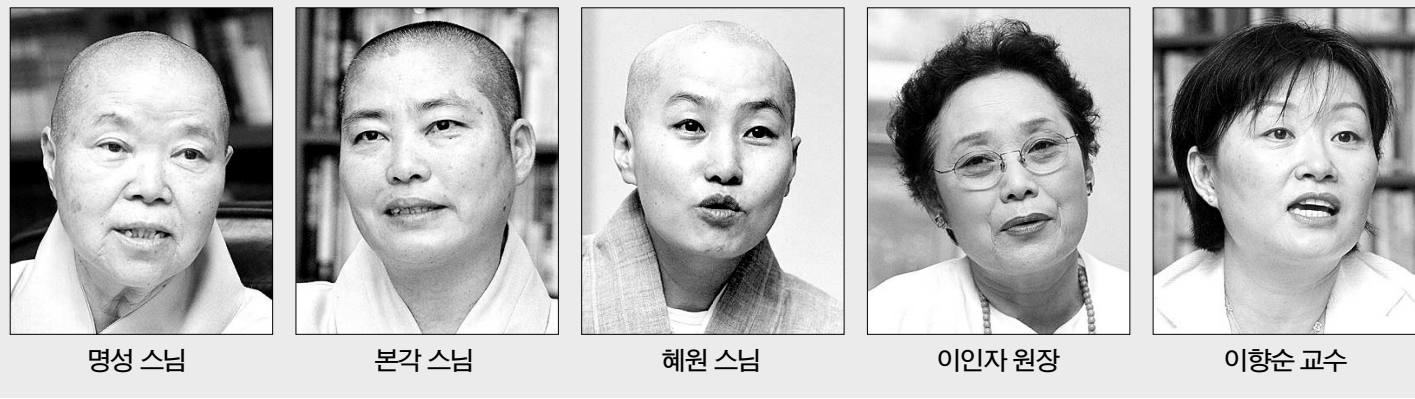


좌담 :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평가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6월 27일~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에는 매일 1500명의 인원이 운집했으며 60여 편의 학술논문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대회는 가장 많은 30개국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여성불자들의 수행과 교육의 문제 해결, 세계 여성불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회를 주도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와 불교여성개발원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대회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 참가자 : 명성 스님(대회장)
 - 본각 스님(대회 추진위원장)
 - 이인자 원장(불교여성개발원)
 -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 대학)
- 사 회 : 혜원 스님(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 일 시 : 2004년 7월 12일 오전 10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접견실

언어 장벽 넘어 한국 불교 세계화를



야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성 불교 '운동가'와 '학자'들이 한국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인자 :이제는 비구니 스님들이 자신의 수행을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측면에서 재가불자들을 지도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명성 : 하화중생은 부처님의 뜻입니다. 하화중생을 하기 위해선 출가자와 재가자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서로 동떨어져선 안 됩니다. 재가 여성불자들은 관세음보살 같은 대 자비심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하화중생은 스님들에게 기댈 게 아니라 여성 자신들이 보현보살, 문

나죠. 1년 여학연수 같은 비현실적 대응보다는 좀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각 : 중요한 건 불광산사가 왜 미국에 서대대학을 가지고 있고 자재공덕회가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대만불교를 국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그만큼 좁았다는 말도 됩니다. 이제는 언어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세계 불교를 바라 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명성 : 저는 이번 대회가간 동안 세계인들이 부처님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수단인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대화, 대중화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이인자 : 여성개발원은 대회를 끝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재가불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재가불자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 스님들에게 하화중생 해 달라 부탁드린 건 아직 재가여성 불자들이 조직적, 개념적으로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앞으로 여성 불자를 교육할 수 있는 아카데미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만경>을 통해 재가 여성불자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원 :이번에 쏘모 스님이 발표한 논문이 '미국에서의 불교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쏘모 스님의 근무처

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학생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명성 :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닫혀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종교학 공부도 비교종교학을 많이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는 불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종교를 연구해야 우리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각국 여성불자들이 눈을 번쩍 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의의 경쟁을 시작할 겁니다. 한국불교와 비구니 승단을 부러워하고 우리를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부터 한국 여성불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인자 : 스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재가자 교육도 중요합니다. 한국 총림이 5군데죠. 거기서 일년에 한 사람씩만 재가자를 교육시켜도 불교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소국의 여성 불자들은 스님조차도 못된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위원회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향순 : 제 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계인들이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족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자칫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다 퍼지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비구니 종주국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 비구니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이 하나도 없습니 다. 이런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자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챙겨야 합니다.

명성 : 늘 강조하지만 이제는 종교의 전환기가 왔습니다. 기독교는 최고봉에 이르러서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걷지만 지금은 우리 불교가 점차 성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던 것을 세계 사람들이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세계 여성불자대회는 한국불교를 다시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운동가'와 '학자' 결집 의미 깊어 | 한국 비구니 연구자료 꼼꼼히 챙겨야

타종교 연구해 우리 위치 바로 봐야 |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필요성 재확인

수보살, 관세음보살 같이 부처님의 뜻을 내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게 참된 하화중생입니다.

혜원 : 그동안 한국불교가 세계화되지 못한 데는 언어가 중요한 걸림돌이었습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언어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향순 : 저의 경우에는 불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왜 한국 비구니가 오랜 전통과 우수한 승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언어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의 비구니 승가도 체계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불교가 어떻게 하면 서양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는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

달라야 라마, 티크 님 스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외국어에 능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일선에 있는 저로서는 언어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근본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승가 교육은 내전에 치우치지 않고 외전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현 시대에 필요한 포교과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덕분에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여성 불자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구니, 재가불자가 부처님의 교법을 널리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불교의 현

가 가톨릭 대학이라고 합니다. 타종교인들이 불교를 알기위해 노력하는데 비해 우리는 그런 면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맞는 불교 교육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향순 : 다른 타종교 성직자들은 불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스님들은 수행에 바빠서 그런지 타종교의 기본 신앙이론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당장 실행에 옮기기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스님들이 서양 종교와 철학을 제도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서양종교와 철학을 이해하면 불교가 왜 우수한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아직도 불교가 비현실적이고 전통만을 중시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

다. 이제부터 한국 여성불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향순 : 제 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계인들이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족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자칫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다 퍼지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비구니 종주국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 비구니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이 하나도 없습니 다. 이런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자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챙겨야 합니다.

명성 : 늘 강조하지만 이제는 종교의 전환기가 왔습니 다. 기독교는 최고봉에 이르러서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걷지만 지금은 우리 불교가 점차 성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던 것을 세계 사람들이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세계 여성불자대회는 한국불교를 다시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좌담내용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① 천도의 명멸 백중기도 : 기도비 50,000원이상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 50일간)

② 사랑의 명멸 칠석기도 : 기도비 30,000원이상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 7일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력과 청정으로 나누어 위패를 모시며 영가님 수에 관계없이 한 쪽이 50,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큰법당에 영가등을 기도기간 내내 달아 드립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재가자의 마음가짐]

제가자로 보살로서 있을 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가정이란 그성품이 공함을알고 꾀박됨을 면하도록 하여지이다

부도님을 효성으로 섬길 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그와같이 부처님을 시봉잘하고 온갖것을 보호하게 하여지이다

아내자식 한자리에 모일 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원수거나 친한이나 아주고르게 탐욕집착 영원토록 떠나지이다

행여만일 오욕락을 얻을 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깊이박힌 욕심화살 뽑아버리고 구경에는 안은하게 하여지이다

[華嚴經淨行品]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